유가의 생명관 : 生生과 '살림'의 생명론

김병환(서울대)

목차

1. 생명이란 무엇인가?
2. 생명에 대한 정의 가능성
3. 유가의 생명관: 생생의 원리
4. 음양 감응과 상호 대대
5. 생생에서 만물일체로!
6. 생생, 만물일체에서 ‘살려냄’, ‘살림’으로!
7. 仁은 타존재, 만물을 살리는 살림의 이치!

생명이란 무엇인가?

- 생명 : ‘살아서 숨 쉬고 활동할 수 있게 하는 힘’

- ergen(알타이 계통의 북방 퉁구스어) : **숨[목숨], 생명** to breath, living power

  Psyche, Zōe, bĭŏs

- 생명[=목숨]=생 [生, 生生] 生: life 삶, to live **살아 있음**

생명에 대한 정의 ?

- 자연과학적 **정의** : 생리적, [물질]대사적, 유전학적, 생화학적, 열역학적 Def.
  - 생리적 정의: 호흡, 성장 등생리작용을 지닌 대상을 생명이라 규정
  - 유전학적 정의: [생물체의] 유기물질, 구조 등을 복사할 수 있는 것

    ⇒ **불충분!**

- 자연과학적 정의 : 인간 생명론 X
- 생명 정의 불가능성: '인식의 대상이 아님', '이해'될 뿐

유가의 생명관: 생, 생생(生生)의 원리

- 정의 불가능, but **유가적 생명 담론** 가능!

儒家 : 生, 生生

① 精 → 氣 → 神

② 氣 → 精 → 神

[元氣 → 精 → 形 → 神]

⇒ **精氣神**의 결합체를 **魂魄[넋, 얼]**이라 봄 (魂-陽-天 , 魄-陰-地)

유가의 생명관: 생생(生生)의 원리

천지의 큰 힘은 만물을 **생성**하는 것이다. **天地之大德曰生「繫辭傳」下**

생명을 낳고 또 낳음을 **역**이라 한다. **生生之謂易「繫辭傳」上**

⇒**'생(生)'** 혹은 **'생생(生生)'**:

현대적 의미에서의 삶 혹은 생명과 생명을 끊임없이 탄생시키는 작용[**生生不已**]

H. Bergson : '생명의 약동 élan vital, vital impetus '

유가의 생명관: 생생(生生)의 원리

▪『주역』 생명 : 건곤(乾坤), 천지(天地) 작용의 소산

or 창생을 이루어나가는 유기체적 작용

⇒ 끊임없는 생생의 작용 = **역(易)!**

⇒ 천지의 가장 중요한 공능: **생(生)** 작용=생명의 산출!

"우주는 역동적으로 생명을 창생하는 창조의 끝없는 과정이며 이 생명창생의 과정 속에서 자연과 인간은 융화하여 광대화해(廣大和諧:comprehensive harmony)를 이룬다."(方東美)

음양 감응과 상호 대대

"천지가 교감하니 만물이 서로 형통한다." **天地交而萬物通也 泰卦「彖傳」**

"천지의 음,양 두 기운이 작용하여 만물이 순화하고 남녀의 정기가 합하여져 만물이 변화 생성된다."
天地絪縕 萬物化醇 男女構精 萬物化生「繫辭傳」下 5章

- 두 성질의 **상생(相生)**: **一陰一陽之謂道「繫辭傳」上 5章**
- 일왕일래(**一往一來**)·일승일강(**一升一降**)·일동일정(**一動一靜**)·일음일양(**一陰一陽**)

⇒ '물극필반(**物極必反**)' → 상호공존의 도리 → 타자에 대한 열린 마음, 생명의 연대,공존

음양 감응과 상호 대대

- 천지가 만물을 창생하고 양육하는 이유?

⇒ 천지가 자신의 존재 양식을 드러냄

생명의 산출이라는 **생생**의 과정→ 천지의 만물에 대한 사랑**[仁]**이 드러남

음양 감응과 상호 대대

- ‘重生’을 넘어선 **도덕/인문생명**의 완성

“한 번 음하고 한 번 양하는 것을 도라고 한다. 이 도를 계승하는 것이 **善**이며, 이 도를 이루는 것이 **性**이다. 어진 사람은 이를 보고 인이라고 하고, 지혜로운 사람은 이를 보고 지라고 한다. 사람들은 이 도에 의지하여 살면서도 이를 잘 알지 못한다. 그래서 군자의 도를 행하는 사람이 드물다..... 그 성대한 덕과 대업이 지극하다.”

一陰一陽之謂道 繼之者善也 成之者性也 仁者見之謂之仁 知者見之謂之知 百姓日用而不知 故君子之道鮮矣 ..... 鼓 盛德大業至矣哉「繫辭傳」上

음양 감응과 상호 대대

- **목표** : 개체 생명은 내재된 천지의 본성을 실현시킴으로써 仁을 완성

⇒ 생생에서 **성덕(盛德)**의 과정

"무릇 **대인**은 천지와 더불어 그 덕을 합하고, 해와 달과 더불어 그 밝음을 합하며, 사계절과 더불어 그 질서를 합하고, 귀신과 더불어 그 길흉을 합한다 (...) 하늘도 어기지 않는 존

귀신에 있어서야!"

夫大人者與天地合其德 與日月合其明 與四時合其序 與鬼神合其吉凶 …… 天

於鬼神乎 乾卦「文言傳」

"**천하지성**(天下至誠, 22장)" "**천하지성**(天下至聖, 31장)"(『중용』)

생생에서 만물일체로!

정명도: 생생은 바로 仁!

"천지의 큰 힘을 생이라 한다. 천지의 기운이 작용하여 만물이 순화된다. 생을 일러 성이라 하니 만물의 생의(生意)를 가장 잘 볼 수가 있다. 이 원(元)은 선의 으뜸이니 이것이 소위 仁으로 사람은 천지와 하나이다." 天地之大德曰生 天地絪縕 萬物化醇 生之謂性 萬物之生意最可觀 此元者善之長也 斯所謂仁也「遺書十一」『二程全書』

생생에서 만물일체로!

생생의 의지가 만물을 관통하고 있다는 점에서 만물일체의 **인**을 강조

"의서(醫書)에서는 수족이 마비된 것을 일러 불인이라 한다. 이 말은 인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이다. 인이란 천지만물을 한 몸으로 여기는 것이다. 세상에 나 아닌 것이 없어 모든 것을 나의 몸으로 여기니 미치지 않은 바가 있겠는가?" **醫書言手足痿痺爲不仁 此言最善名狀 仁者 以天地萬物爲一體 莫非己也 認得爲己 何所不至「遺書二上」『二程全書』**

"맥박을 짚어보는 데에서 인을 가장 잘 체험할 수 있다." **切脈 最可體仁「遺書三」**

"병아리를 관찰하는 것에서 인을 체인할 수 있다" **觀鷄雛 此可體仁「遺書三」**

생생에서 만물일체로!

"명도 선생이 말씀하시길, '무숙선생은 창 앞의 풀을 제거하지 않았다' 내가 그 이유를 물으니 무숙선생은 '나의 살고자하는 뜻과 같다'라고 대답하셨다." **明道先生曰周茂叔窗前草不除去 問之 云與自家意思一般『近思錄集註』**

"묻기를 주선생님께서 창 앞의 풀을 베어 내지 않고 '나의 뜻과 같다'라고 말씀하셨다는데, 이는 그 생생자득의 뜻을 취한 것입니까 아니면 살아있는 사물에서 천리가 유행하는 것을 살피려고 하는 것입니까? 대답하기를 이는 굳이 풀이 할 필요가 없다. 그런 상황을 만나면 스스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. 모름지기 자신의 뜻과 그 풀의 뜻이 어떻게 같은지를 알아야만 한다." **問周子窗前草不除去 云與自家意思一般 此是取其生生自得之意耶 抑於生物中欲觀天理流行處耶 曰 此不要解 得那田地 自理會得 須看自家意思與那草底意思如何是一般『朱子語類』卷96**

⇒ 생생의 원리가 우리 삶과 만물을 관통

생생, 만물일체에서 '살려냄', '살림'으로!

- 생생: 생명의 연대 = **仁**

인은 천지의 생기이다. **仁是天地之生氣『朱子語類』卷6**

인은 [생명을] 낳으려는 뜻이다. **仁是箇生底意思 上同 卷20**

[생명을] 낳으려는 뜻이 인이다. **生底意思是仁 上同 卷6**

천지가 만물을 낳을 때에 인이 있다. **天地生這物時 便有箇仁 上同 卷17**

⇒ **자연의 창생력: 유가 생명관, 生=仁**

생생, 만물일체에서 '살려냄', '살림'으로!

- '천지가 만물을 낳는 한없이 넓은 마음' : **자연생명**
- '사람을 사랑하고 만물을 이롭게 하는 마음' : **도덕생명**

⇒ 만물을 낳고 기르는 천지의 마음과 만물을 살리는 인간의 마음은 하나!

"이 마음이란 어떤 마음인가? **천지에 있어서는 만물을 낳는 한없이 넓은 마음이며 사람에 있어서는 따뜻하게 사람을 사랑하고 만물을 이롭게 하는 마음으로 사덕을 포괄하고 사단을 관통하는 것**이다." 此心何心也 在天地則抉然生物之心 在人則溫然愛人利物之心 包四德而貫四端者也 「仁說」『朱子大全』卷67

인은 타존재, 만물을 살리는 살림의 이치!

- “주희에게 있어 인의예지와 같은 인간의 덕성들을 결코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생의와 같이 자연스러운 인간 본성의 산물”

⇒ 도덕의 기원을 설명하는 진화윤리학적 입장

- ‘도덕생명’의 발휘는 근본적으로 우리의 생명활동 가운데 일부

우리는 ‘도덕생명’의 드러남인 도덕적 행위를 통해 ‘타존재를 살려내는 살림’의 이치를 실현

⇒ 사회성 동물의 협동 작업에서 도덕의 기원을 찾는 사회생물학, 진화윤리학

인의예지라는 도덕생명: 인간의 사회적 본성에 뿌리내림

인은 타존재, 만물을 살리는 살림의 이치!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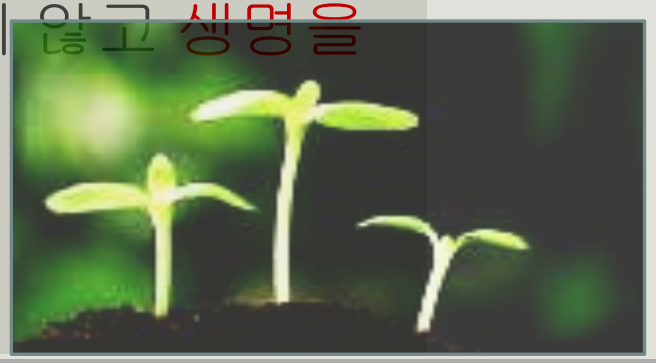
- 仁 : 천지의 만물을 낳는 마음

⇒ 사람이 이를 자기의 마음으로 삼음

⇒ [인은 모든 덕을 포함한다.]즉 인은 '타자를 살림/살려냄'의 원리!

유가 생생의 [도덕] 생명론:

생기 혹은 생생은 단순히 생명을 낳거나 생성시키는데 그치지 않고 생명을 살리고 완성시킨다는 적극적 의미의 '살림'



인은 타존재, 만물을 살리는 살림의 이치!

인은 천지의 생기이다 **仁是天地之生氣** → 인은 천지의 [만물을] 살리려는 기운이다

인은 [생명을] 낳으려는 뜻이다. → 인은 '살리려'는 뜻이다. **仁是箇生底意思**

[생명을] 낳으려는 뜻이 인이다. → 살리려는 뜻이 인이다. **生底意思是仁**

천지가 만물을 낳을 때에 인이 있다. → 천지가 만물을 '살릴' 때에 인이 있다.
天地生這 物 時 便有箇仁

⇒ 장기복제, 장기이식, 배아복제 등 응용윤리 해석에 부합

감사합니다